

사료로 본 3명의 고구려 여성 이민 사적에 관한 고찰

拜根興*

- I. 머리말
- II. 入唐 이민 천남생의 모친 无名 씨
- III. 결혼 후 머지않아 사망한 이민 후손 고제석
- IV. 중서사인 곽정일의 고구려 婢女
- V. 맺음말

국문초록

서기 668년 당과 신라가 연합해 고구려를 멸망시켜 고구려 이민들이 당나라로 유입하게 되었다. 初唐은 개방·포용 국책을 시행하여 당나라에 입국한 고구려 이민자들을 수도 長安·동도 落陽 및 龍右道, 江南道 등에 안치하였는데 시간이 흐르면서 이주민들은 당나라 사람들의 공동체 안으로 융합되면서 당나라의 일원으로 자리잡게 되었다. 본고에서는 출토된 墓誌와 문헌사료에 의해 760년대에 당에 유입한 泉男生의 모친 泉氏 부인·고구려 婢女, 고구려 이민의 후손인 高提昔의 행적을 정리함으로써 이민자, 특히는 여성 이민이 당에 유입한 후의 각자 다른 생활

* 陝西師範大學 歷史文明大學院 教授 / baigenxing@126.com

경력을 고찰하였다. 이로 인해 학계에 더 많은 入唐 이민에 관한 표본 자료와 모범 사례를 제공하고자 한다.

◆ 주제어

고구려, 고구려 이주민, 당나라, 여성

I. 머리말

주지하다시피 初唐 시기에 한반도에서 삼국분쟁이 일어났고, 고구려가 당을 적으로 삼은 것으로 인해 중국의 천하질서를 수호하기 위해¹⁾ 당은 고구려에 대한 일련의 조치를 시작하였다. 貞觀 15년(645)의 唐太宗 李世民 친정, 貞觀 말년의 세 차례에 달한 소규모 징벌, 그리고 唐高宗 顯慶 이후의 일련의 군사행동이 668년 고구려가 멸망할 때까지 지속되었다²⁾. 이로 인해 고구려 이민 문제가 발생하게 되었다³⁾. 지금까지 문헌 사료에 언급된 것을 제외하고는 20세기 초기부터 잇따라 출토된 고구려 이주민 묘지 30여 점이 국내외 학계에서 주목받고 있다. 본고에서는 기존 연구의 기초에서⁴⁾ 당나라에 입국한 고구려 이주민 중 세 명의 여성 이민자를 검토하고자 한다. 여러 학자들의 많은 가르침을 받고자 한다.

II. 入唐 이민 천남생의 모친 无名 씨

천씨 부인에 관해서는 한·중·일의 현존 문헌자료에는 기록이 없으

- 1) 高明士, 「从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關係」, 『中韓關係論文集』, (台北)韓國研究學會編, 1983; 高明士, 「隋唐天下秩序與靺鞨府州制度」, (台北)『中華民國史專題論文集』第5輯, 國史館, 2000;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修訂本), 사회과학문헌出版社, 2020 참조.
- 2) 拜根興, 「激蕩五十年：高句麗與唐關係研究」, (韓)『高句麗研究』14, 2002.
- 3) 範恩實, 「入居唐朝內地高句麗遺民的迁徙與安置」, 『社會科學戰線』2017년 第5期.
- 4) 사실 고구려 이민 문제는 貞觀 19년 당태종이 親征한 후에 이미 시작되었다. 唐廷은 귀순한 고구려 군인 등 3천500명을 양경과 그 주변에 안치했다. 羅振玉編著, 『唐代海東藩閔志存』(石刻史料新編本), 台灣新文豐出版公司, 1987; 盧泰敦, 「高句麗遺民史研究」, 『韓佑勳博士停年紀念論集』, 1981; 金文經, 『唐高句麗遺民和新羅僑民』, 日新社, 1986;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苗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拜根興, 「入唐高句麗移民研究現狀與問題」, 『社會科學戰線』2019년 제8기; 曹凡煥, 「在唐 고구려 遺移民의 삶과 죽음」, 『韓國古代史探究』第35輯, 韓國古代史探究學會編, 2020.

며, 국내외 학계에서도 논한 바가 없어 검토할 필요가 있다. 아들 천남생이 泉蓋蘇文의 爵位와 권력을 계승한 점 등으로 보았을 때 천개소문의 측실일 가능성은 희박하고, 천개소문의 정실이라고 볼 수 있다.

현재 천씨 부인에 관한 기록은 1926년 낙양에서 출토된 「泉憲誠墓誌銘」에서 두 곳 찾아볼 수 있다.

첫 번째 기록은 儀鳳 4년(679)에 천남생이 安東府의 관사에서 병사하여 그의 아들인 泉獻誠이 매우 슬퍼하였는데, 이에 관해 묘지명에는 다음과 같이 기재되어 있다.

(천헌성은) 아버지의 喪을 당함에 슬퍼하여 초췌해짐이 禮를 지나쳤는데, 궁중에서 보낸 사신이 조문을 하러 왔으며 도로에 (조문객이) 서로 이어져 있었다. 祖母는 공이 마실 것도 끓고 슬피 울자 갈수록 걱정하였는데 매번 힘써 권하나 따르지 않으므로 공을 위하여 음식을 끓였다. 공은 이로 인하여 조금씩 음식을 먹음으로써 (조모의) 자애로운 모습을 깨달았다. 사랑스럽게 양육함의 깊음은 李虔의 조모만이 아니고 효성의 지극함은 어찌 程曾의 손자만에 그치겠는가.⁵⁾

이 기록에는 천헌성 조모의 성씨나 나이, 그리고 천씨 부인이 천씨 형제의 내분에 대해 어떠한 태도를 취하고 어떠한 노력을 했는지 등 문제에 관해 언급하고 있지 않다. 물론 고구려의 혼란스러운 정세를 고려했을 때, 천씨 형제가 평양의 실권을 장악하고 있고 고구려의 마지막 왕인 高藏은 이에 대해 아무것도 할 수 없는 상황이었는데, 권력에 관심이 없는 듯한 어머니가 나서서 중책을 맡길 기대하는 것은 무리였을 것이다. 또 한 가지 의문은 천씨 부인이 천남생을 따라 국내성을 빠져나와 당나라에 입국했는가 하는 점이다. 그렇지 않다면 평양성에 살다가 고구려 멸망 후에야 泉男産 등을 따라 당의 수도 장안에 도착했던 것일까? 이를 방증하는 자료가 없기 때문에 더 이상은 알 수 없다. 다만 현재 남아 있는 자료를 보면 이 두 가지 가능성이 모두 있는 것 같아 결론을 내리

5) (泉獻誠) 丁父憂, 哀毀過禮, 中使借問, 道路相屬. 祖母以公絕漿泣血, 益增悽念, 每勉強不從, 則為之輟食. 公由是稍加飲啜, 以喻慈顏. 愛養之深, 不獨李虔之祖母; 孝感之極, 豈止程曾之順孫.

지는 않았다. 두 번째 기록은 묘지명에 아래와 같이 기재되어 있다.

영순(永淳) 원년(682), 조모의 상(喪)을 당하여 적자임을 이유로 관직에서 물러났다.⁶⁾

이는 즉 영순 원년(682) 모월에 천씨 부인이 장안에서 병사하자 천현성은 천씨 가문의 종손으로서 집에서 상을 치렀다는 뜻이다. 당나라의 丁憂 규정에 따르면 정우 기간은 3년인데, 묘지명의 날짜를 보면 光宅 원년(684) 10월이라 기재되어 있다. 이 날짜의 기록은 다음과 같다.

云麾將軍에 제수되고 右衛大將軍 員外置同正員에 임용되었으며, 勳封은 모두 예전과 같았다. 또한 그 달의 29일에는 칙령을 받들어 右羽林衛上下가 되고, 가장 신위하는 대신으로 되었으니, 수하들이 깊이 의지하였으며, 넓고 깊은 덕행이 두루 미치니 오랫동안 표창되었다.⁷⁾

이 기재 내용을 감안하면 천현성의 정우 기간은 3년이 채 안 된다는 것 같다. 천씨 부인이 당나라에 입국하여 천남생 가족과 같이 생활하였다는 것은 아마 천씨 형제의 내분에 대한 부인의 입장 및 태도를 암시하는 듯하다. 일반 상식으로 보았을 때 만약에 천씨 부인이 천씨 형제의 내분에서 泉男建과 泉男産 두 사람을 비호하였다면 당나라에 가서도 천남산 등과 더욱 가까워졌을 것이고, 천남산과 함께 살았으며, 천남생 父子와 아주 가까이 지내지는 않았을 것이다. 물론 이는 일반적인 사리로 짐작했을 따름이며, 천남생이 과거의 나쁜 감정을 잊고⁸⁾ 어머니를 모실

6) 永淳元年，丁祖母憂，以嫡去職。

7) 製授云麾將軍，守右衛大將軍，員外置同正員，勳封並如故。又奉其月廿九日敕，令右羽林衛上下，心膂大臣，爪牙深寄，汪濊德澤，綢繆恩獎。

8) 「泉男生墓誌銘」에는 泉男生이 당고종에게 泉男建을 죽이지 말라고 간청하는 기록이 남아있다. 그 기재 내용은 아래와 같다. “其王高藏及男建等，鹹從俘虜，巢山潛海，共入隄封；五部三韓，並為臣妾。遂能立義斷恩，同鄭伯之得俊；反禍成福，類箕子之疇庸。其年與英公李勣等凱入京都，策勳飲至。獻捷之日，男建將誅，公內切天倫，請重閭而蔡蔡叔，上感皇眷，就輕典而流共工。友悌之極，朝野斯尚。其年蒙授右衛大將軍，進封卞國

수도 있었을 것이다. 이에 대해서도 일단 결론은 내리지 않겠다.

또한 고구려의 권력 강자인 천개소문을 오랫동안 수행한 탓인지 천씨 부인은 강한 의지와 남다른 예지를 갖추고 있었다. 아들 천남생이 遼東 임지에서 사망하여 집안의 기둥이 무너지고 장손이 슬픈 자기 감정을 억제하지 못하고 있고 백발인이 흑발인을 보내는 처참한 처지에 놓이게 되었다. 보통 여인이라면 어찌해야 할지 몰랐을 텐데, 그녀는 장남을 잃은 슬픔을 삼키며 노구에도 불구하고 강력한 조치(단식)를 취하며 종손인 천현성을 타이르고 기운을 북돋게 하여 천남생이 없는 당나라 정부와 민간의 복잡한 상황에 대처하여 천씨 가문의 중심이 되었다. 여장부라고 할 만하였다. 물론 천씨 부인의 애통함은 짐작할 수 있지만 위기에 대처하였던 그녀의 대가집 규범은 매우 긍정적이고 선양할 만하다.

그리고 천씨 부인의 연령 문제를 살펴보자. 천남생은 의봉 4년(679)에 49세로 병사하였기에 출생 연대는 631년이 된다. 고구려 귀족 여성의 결혼 연령과 일반인의 혼육 주기에 따라 만약 천씨 부인이 15세에 천개소문과 결혼하여 장남 천남생을 이듬해에 출생하였다고 본다면 천씨 부인의 생년은 15년 전으로 보아야 할 것이다. 그럼 천씨 부인의 생년은 약 615년이며, 682년에 사망하였기에 향년 약 68세로 볼 수 있다.

천씨 부인이 어디에 묻혔는지에 대해서는 문헌이나 석각 자료에는 보이지 않는다. 아마도 천씨 가족묘의 영역 안에 있을 것이다. 낙양의 천

公, 食邑三千戶, 特進, 勳官如故, 兼檢校右羽林軍, 仍令仗內供奉.”(周紹良 등 편집, 『唐代墓誌匯編』(上冊), 上海古籍出版社, 1991. 참조.)

번역문: 그 왕 高藏과 男建 등이 모두 포로가 되었으며 (高句麗의) 높은 산과 깊은 바다가 함께 (唐의) 경계로 들어왔고 五部和 三韓이 모두 臣妾이 되었다. 결국 능히 義를 세우고 私恩을 끊음은 鄭伯이 과거에 급제한 것과 같았으며, 禍를 도리어 福으로 만든 것은 箕子가 功을 이루었던 것과 유사하다고 하겠다. 그 해에 英國公 李勣 등과 함께 도성으로 개선하여 들어오니, 공훈을 기록하고 술을 마셔 공로를 축하하였다. 승리를 아뢰는 날, 男建을 바로 誅殺하려 했으나 公은 속으로 (형제의) 天倫을 절실히 느끼고 충충으로 된 궁궐문을 (지나) 蔡叔에 청하여 황제의 보살핌으로 처벌을 가볍게 하여 (男建을) 共工(의 예)처럼 유배하였다. 형제간 우애의 지극함으로 朝野에서 이것을 높이 여겼다. 그해 右衛大將軍을 除授하고, 卞國公으로 進封하여 食邑 3,000戶를 받았으며 特進과 勳官은 예전처럼 하고 檢校右羽林軍을 겸함으로써 仗內供奉하도록 하였다.

씨 가족묘지 주변이나 西安 동남쪽 등지에서 천씨 부인의 묘지가 발견되어 천씨 入唐 이후의 역사를 검토하는데 한층 상세하고 확실한 자료가 제공되기를 기대한다.

Ⅲ. 결혼 후 머지않아 사망한 이민 후손 고제석

咸亨 5년(674) 6월, 고구려 이주민 高提昔은 26세의 나이로 병사했다. 「大唐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泉府君故夫人高氏墓誌」에 의하면 고씨에 관하여 “結聘泉門，才盈晦朔，未諧歸展，俄事淪亡，惟其所生，悲摧玉掌”라고 쓰여 있다. 즉 고씨는 천씨 사위와 결혼한 지 한달만에 집에서 병사했다는 뜻이다. 이에 관하여 필자는 갓 결혼한 고씨가 아마도 신혼 생활에 적응하지 못해 갑작스러운 질병으로 사망한 것으로 생각하고 있다. 혹은 長安의 무더운 여름을 견디지 못해 병에 걸려 죽었을 가능성도 있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26세에 세상을 떠났다는 것은 가슴 아픈 일이다. 묘지명의 기재 내용에 따르면 고제석은 高文協의 장녀이며, 형제에 대한 언급은 없다. 따라서 그녀의 죽음은 당나라에 건너간 고구려 이민 고문협 가족에게 뼈아픈 일이었음에 틀림없다. 한편 고제석의 여동생들은 어떠했을까? 입당한 다른 고구려 이주민과 혼인한 것인지 사료가 부족하여 논하기 어려우나 일단 결론은 내리지 않도록 하겠다.

고제석은 당나라에서 태어났다. 그 당시 여성은 일반적으로 약 15세에 결혼하는데, 26세에 결혼한 고씨는 노처녀가 분명하다. 입당 고구려 이민의 후예로 태어난 고씨는 결국 같은 고구려 이민자인 천씨 가문의 청년과 결혼하였는데, 현재 천씨의 나이는 알 수 없지만 이들의 혼인은 어떤 의미를 지닌 것일까. 이에 대해 王其禕·周曉薇의 자세한 논의가 있으니 아래에 인용하도록 하겠다.

高씨는 어찌하여 스물여섯에 이르러서야 결혼하였는지, 그 원인을 따져보면 두 가지 있다. 첫째는 貞觀 19년에 그녀의 조상이 당나라에 귀순한 후 고구려 정권은

23년간 지속되다가 멸망하였다. 입당 이민 1세로서 국가와 민족의 잠재 의식이 아직 남아있어 문화와 삶의 이념이 서로 다른 당나라 인사를 받아들이는 데 어려웠을 터이니 결혼은 더 말할 나위가 없었을 것이다. 둘째는 조상이 입당한 지 4년 만에 고제석이 태어나 고구려가 망국했을 때 20세가 됐다는 점이다. 그 전에 민족과의 인연을 찾는다는 것은 쉽지 않았을 것이다. 태종시기에서 고종시기에 이르기까지의 기간에 있어서 정관 19년에 처음으로 고구려를 정벌하였는데 安市城 畔 駐蹕 山 전투에서 高延壽를 대파한 후에야 “太宗簡僭薩以下酋長三千五百人, 授以戎秩, 遷之內地”와 같은 성과를 이루었고, 나머지 3만여 명의 포로들은 평양으로 돌려보냈다. 그 후 總章 원년에 고구려가 멸망하고 나서야 약 10여만 명의 가족을 거느린 고구려 이민자들이 당으로 몰려들었다. 이로 인해 고제석이 본국 동족과 결혼할 수 있었던 조건과 기회가 마련되었던 것이다. 이로써 고구려 멸망과 함께 당나라로 이민한 천씨 종족을 추정할 수 있게 되었다. 천남생 일가 외에 입당 후 上元 원년에 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로 임명된 고제석 부군 일가도 있었다. 요컨대 이러한 사정으로부터 고제석은 입당 이주민 2세이지만, 즉 당나라에서 태어났지만 최초로 입당한 고구려 가문으로서 나라가 멸망하는 것을 마지막까지 보기 전에는 민족적 공감과 소속감이 바뀌기 어려웠음을 알 수 있다. 따라서 그 후에 高藏의 딸이 太原公인 王暉과 혼인하고, 고장의 손자인 高震이 眞定侯씨와 결혼하고, 고진 딸이 慈丘縣 현령 邵씨와 혼인을 맺고, 천현성의 손자인 泉慈가 왕위의 딸을 아내로 삼고, 고구려의 후예인 王毛仲이 漢人을 아내로 삼고, 모종의 누나는 또한 侯씨 한인과 결혼하였고, 고구려의 후예 李正己의 고모는 平盧侯에게 시집갔다. 고제석은 부모가 입당한 지 30년, 고구려 亡國 6년이 지나서도 여전히 동족 혼인을 택하였다. 이것은 초기 이민자들이 민족공동체 의식과 귀속 의식 차원에서의 전형적인 표징이며 동시에 이것으로도 민족간의 진정한 융합을 증명할 수 있다. 결혼의 융합은 정치와 사회 나아가 문화 융합을 이끄는 기초이자 전제이기도 하다⁹⁾.

王·周 두 사람의 논문은 고구려 이민 2세들의 결혼 선택에 대한 곤혹과 어쩔 수 없음에 대하여 논술이 제대로 이루어졌다는 점에서 평가할 만하다. 이 논고에서는 또한 이 시기에 당에 있었던 천씨 가문의 천남생, 천남산, 천남건, 천현성 등의 나이와 개인 상황 등을 설명하고 고

9) 王其禕·周曉薇, 「國內城高氏: 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發現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 『陝西師範大學學報』2013年第3期. 한국 학자 金榮官도 이에 관해 논문을 발표하였다. 金榮官, 「高句麗 遺民 高提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97, 韓國白山學會編, 2013.

씨와의 혼인 조건에 적합하지 않다고 하였다. 또한 "당나라에 건너간 천남생 일가가 고제석과 인척 관계가 없는 이상, 고씨의 남편이 천남생 일가와 종친 관계가 있는지에 대해 지금으로서는 사료적 근거가 없지만 그럴 가능성은 배제할 수 없다. 예를 들어 고씨는 고구려의 왕족이고 천씨 역시 그 나라의 귀족이기 때문에 두 명문 가족의 혼인은 당연한 일이다"¹⁰⁾라고 지적하고 있다.

사실 여기에 등장하는 천군은 천남생의 사촌 형제, 즉 신라에 귀순해 당에 입국한 淵淨土의 아들일 것이다¹¹⁾. 『삼국사기』 권7 신라본기·문무왕조에 당고종 총장 원년 8월 기사에 이러한 내용이 기록되어 있다. “元器와 淵淨土를 보내 당나라에 들어가게 하였는데, 정토는 머무르고 돌아오지 않았고 원기만 돌아왔다. 칙명이 있어 이후로는 여인을 바치는 것을 금하였다.”¹²⁾ 여기의 淨土는 연정토, 즉 泉蓋淨土이다. 또 다른 사료에 따르면 “남생이 國內城을 점거하고 아들 현성을 보내어 입조하여 구원을 청하니, 蓋蘇文의 아우 淨土도 역시 땅을 배어 항복할 것을 청해 왔다”고¹³⁾ 기재되어 있어 연정토는 천개소문의 동생임이 분명하다. 사실 2년 전 乾封 원년(666)에 연정토는 고구려의 허약함과 당·라 연합군의 강력한 공세 및 천남생, 천남산, 천남건 형제의 내분, 고구려 정권의 불안정한 현실을 인식하고 있었을 것이다. 마침 그는 천남생을 지지하는 쪽이었고, 고구려왕을 옹립한 천남산과 천남건 형제의 꾀박으로 인한 청산이 두려워 천남생이 어쩔 수 없이 국내성으로 돌아간 사실을 알고 난 후, 고구려 남선을 지킨다는 편의를 이용해 부하들을 데리고 남하하여 신라에 귀순하였다. 이에 관해 아래와 같은 기록이 남아 있다. “고구려에서 지위가 높은 신하인 淵淨土가 12城 763戶 3,543명을 거느리고 항복해 왔다. 정토와 그를 따르는 관리 24명에게 옷과 일상 용품, 식량,

10) 王其禕·周曉薇, 앞의 논문.

11) 한국인 학자 김수진 씨는 박사 논문에서 泉군에 대해 언급하였는데 이 泉군이 고구려 이주민 연정토(淵淨土)의 후예일 가능성을 제기하였지만 더 이상 깊게 논하지는 않았다.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206쪽 참조.

12) 元器與淨土, 入唐, 淨土留不歸, 元器還. 有敕此後禁獻女人

13) 『新唐書』 권220, 東夷·高麗傳.

집을 주어 王都와 州·府에 안치하였다. 그 중 여덟 城은 온전하였으니 모두 사졸을 보내어 鎮守하게 하였다.”¹⁴⁾ 하지만 연정토는 신라에 귀순하기 전에 사람을 보내어 천남생과 소통했을 것이며, 이 사실을 당나라에서도 알고 있었을 것이다. 즉 연정토가 부하를 데리고 신라에 귀순했지만 최종 목적지는 당나라였고, 신라 왕신들도 이를 잘 알고 있어 2년 뒤에 당나라로 파견했던 것이다. 연정토가 당에 남아서 돌아오지 않자 신라도 이를 받아들였을 것이며, 연정토의 가족도 그 후 당나라에 도착하였을 것이다.

따라서 필자는 고제석의 남편인 천군은 천남생·천남산·천남건과 같은 또래일 것이며, 입당 후에 右驍衛永寧府果毅都尉로 임관된 것으로 보고 있다. 즉 4품 무관의 연정토의 자식이라고 생각하고 있다. 만약 사료의 기록 내용으로 이렇게 추정할 수 있다면 천씨 가문의 당나라 분파는 천개소문과 연정토 두 갈래였을 것이다.

또한 묘지명의 기록 중 “然而結聘泉門，才盈晦朔，未諧歸展，俄事淪亡，惟其所生，悲摧玉掌。 粵以咸亨五年六月四日卒於來庭里之私第，春秋廿有六”으로 보았을 때 고제석은 26세가 되어서야 시집가고, 천씨와 결혼한 지 한 달 만에 불행하게도 사망하게 되었다는 것을 알 수 있다. 하여 앞에서 인용한 사료는 그냥 마을 친구들이 고제석의 사망에 대한 안타까운 심정을 표현한 것일 뿐이다. 물론 1세 또는 2세 입당 고구려 이민자의 통혼 대상자가 동족인 고구려 이민자가 많다는 것은 입당 고구려인들이 당나라 사람의 공동체에 융합되기까지는 시간이 필요하였으나 2세 이후에 이르러서 여러 가지 상황이 바뀌면서부터 이들이 唐人和 통혼하는 것도 일반적인 일이 되었다는 것을 말해준다. 한편 고씨는 來庭里 私第에서 사망했는데 내정리는 來庭坊이며, 내정방은 당 장안성朱雀門길 동쪽 제4거리 서쪽에 있는 북쪽에서 제2방에 위치한다. 이 곳은 大明과 가깝고 천남생 가족이 입당한 후의 거주지인 興寧坊과도 거리가 가깝다. 두

14) 『三國史記』 권6, 新羅本紀 文武王 6년조, “高句麗貴臣淵淨土，以城十二，戶七百六十三，口三千五百四十二來投。淨土及從官二十四人，給衣物糧料家舍，安置王都及州府，其八城完，並遣士卒鎮守。”

곳 사이는 한 坊 거리이다. 당나라 정부는 내정리·내정방에 연정토 가족을 안치하고, 천남생 가족은 이와 가까운 곳, 즉 坊 하나의 거리에 있는 흥녕방에 안치하지 않았을까? 이러한 점과 갓 시집간 요인을 분석해보았을 때 고제석이 시가에서 사망한 것은 인정할 수 있을 것이다.

고제석의 장례와 매장지에 관해서는 묘지명에 “以上元元年八月廿五日 窆於萬年縣漣川之原禮也。將恐秋陽遞序，陵谷遷迴，所以圖撰芳猷，樹旌幽壤”로 기록되었다. 이 기록으로부터 고제석이 咸亨 5년 6월 4일에 사망하였고, 같은 해 8월 25일, 즉 두 달이 지나서 장안성 東漣河가 있는 벌에 묻혔음을 알 수 있다. 사망부터 매장되기까지의 시간은 두어 달이 된다. 일개 평민으로서 그것도 짧은 여자가 사망한 후 매장까지의 시간 간격은 정상적이라고 할 수 있지만 짧은 편은 아니다. 또한 입당 고구려 이민자들은 고씨도 그렇거니와 그녀의 남편 천씨 가족의 조상 무덤도 모두 장안에 없다. 그전에 입당한 아버지가 아직 살아있어 장안 부근에 매장하는 것은 묘지 선정과 관련하여 京師의 주관 부서의 인가를 받아야 할 뿐만 아니라 매장에 관한 의례 규정, 고씨, 천씨 친족의 제사, 묘지의 토목조성 사업 등 모두가 시간이 필요한 것이다. 상술한 王其禕·周曉薇의 통계에 따르면 초당시기의 고구려 이민의 묘지는 장안성 동쪽에 5곳, 남쪽에 2곳 있어 조정에서 고구려 이민을 위한 일정한 매장지를 마련하지 않은 것 같으며 낙양에서도 마찬가지이다. 그리고 王其禕·周曉薇는 기존 자료에 의하여 고구려 이민의 후손들은 조상의 묘를 이장하는 풍습이 없었다고 하는데, 이에 관해서는 좀 더 면밀한 고찰이 필요하다¹⁵⁾. 또한 程義는 도성 장안에 묻힌 異域 이주민들은 일반적으로 "동쪽에서 온 사람은 동쪽에, 서쪽에서 온 사람은 서쪽에 매장한다"¹⁶⁾고

15) 王其禕·周曉薇의 논문은 고구려 이민자의 매장지에 대해 자신의 견해를 밝히고 있는데, 이는 기본적으로 구체적인 상황을 반영한 것으로 긍정할 만하다. 하지만 일부 문제에 대해서는 일률적으로 말할 수 없다. 泉씨 집안의 경우 泉男生·泉憲誠·泉怱의 묘지가 인정해 있다. 高質·高慈 부자의 묘지도 같은 곳에 있다. 그리고 高欽德·高遠望 부자의 묘지도 같은 곳에 있다. 또한 백제 이민자 黑齒常之·黑齒俊 부자도 같은 곳에 매장되어 있다.

16) 程義, 『關中地區唐代墓葬研究』, 文物出版社, 2012.

주장하고 있다. 그러나 동쪽에 있는 고구려, 백제 이민자들이 성남에 묻혀 있다는 설이 있어 보완할 필요가 있다. 어쨌든 당나라는 개방·포용 국책을 시행하고 있으며, 당에 들어온 주변 민족국가의 이주민들에 대한 매장지 계획은 상세하지 않은 듯하며, 다양한 분포 양상을 나타내고 있다. 예를 들어 입당 고구려 이민자들은 장안성 동쪽에 비교적 많이 묻혀 있지만 장안성 남쪽의 벌(原) 또는 高陽原에도 묻혀 있으며, 백제 이민 祿氏 가족묘도 성남 고양원에 위치해 있다¹⁷⁾. 하지만 확실한 것은 고구려 또는 백제 이민이 입당 후에도 가족이 한 묘지를 공유하는 풍습을 기본적으로 유지했다는 점이다. 물론 당과 武周 정권이 교체되면서 도성이 장안에서 落陽으로 바뀌는 상황에서 고구려 왕족 고씨의 후손이 장안, 낙양 양지에 묘지를 갖고 천씨 가족묘지도 낙양 주변에 분포된 것 또한 사실이다. 이에 관해서는 사료에 근거하여 더욱 세밀한 검토를 해야 할 것이다.

IV. 중서사인 곽정일의 고구려 婢女

郭正一에 관해서는 『新唐書』 권106에 河北定州 高城 사람이며, 中書舍人 弘文館 學士를 담당했다는 전기가 남아있다. 高宗 永隆 연간 祕書少監 檢校中書侍郎의 관직으로 승진하였으며 郭代舉, 岑長倩 등과 함께 同中書門下承受進止平章事로 임명 받았다. 平章事는 곽정일 등으로부터 시작되었다. 당고종이 곽정일을 불러 吐蕃 국정에 대한 대처 방법을 묻자 곽정일은 우선 精氣를 키우고 銳氣를 모아 때가 되면 대거 진격해야 한다고 주장하였다. 조정에 있는 다른 신하들도 이에 동의하였고, 당고종은 곽정일의 주장을 받아들였다. 고종이 병환에 시달리자 태자가 나라를 감독하고, 裴炎·劉齊賢·곽정일 등에게 명하여 “東宮에서 平章政事(나라의 중요한 정사)”를 논하였다. 고종이 임종할 즈음에 遺詔를 남겨

17) 拜根興, 「唐代百濟移民祿氏家族墓誌相關問題研究」, 『當代韓國』 2012년 제2기.

태자를 보좌했는데, 그 태자가 바로 唐中宗이었다. 하지만 무주정권 수립 후 가혹한 관리인 周興이 죄명을 꾸며 광정일은 살해당하였고, 전 가족이 몰살되었다. 『신당서』 광정일 전기를 보면 광정일은 당고종 때에 고구려 정벌전에는 참여한 기록이 보이지 않는다. 하지만 다른 사료에는 이에 관한 내용이 기재되어 있다.

광정일은 李英公의 요동 정벌의 管記였는데 이적은 돌아와서 이렇게 말했다. "이번 출정에 있어서 나는 광정일의 가소로운 일을 기록하였다. 10권을 채우더라도 오히려 미진하다."¹⁸⁾

이 기록에 의하면 李勣은 건봉 2년에 고구려 정벌을 하였는데 광정일은 이적의 行軍管記를 담당하여 당군을 따라 고구려 출정에 나섰다. 그러나 일개 文人으로서 군대의 출정에 참여한 광정일은 軍務나 軍陣을 잘 몰라서인지 어떠한 행위가 행군 작전과 어긋나서 우스꽝스러운 일을 저지르게 되었을 것이다. 하여 평생을 변경 개척으로 살아온 이적과 부하들의 비웃음을 사게 된 것이다. 필자가 알고 있는 바에 의하면 이 시기에 당나라 東征西討의 行軍管記나 行軍長史를 맡은 인물로는 賀遂亮¹⁹⁾ · 元萬頃²⁰⁾ · 杜爽²¹⁾ · 薛萬備²²⁾ 등도 있었다. 기록에 따르면 원만경과 광정

18) 郭正一為李英公征遼管記，勣還曰：“此段行，我錄郭正一可笑事，雖滿十卷，猶未能盡”。((唐)劉餗著，程毅中點校，『隋唐嘉話·補遺』，『類說』권6「傳記·郭正一可笑事」수록，中華書局，1979.)

19) 拜根興，「〈大唐平百濟國碑銘〉關聯問題考釋」，『唐史論叢』8，杜文玉主編，三秦出版社，2006.

20) 『三國史記』권22，高句麗本紀 寶藏王 조에 이와 같은 기록이 보인다. “以水軍自別道趣平壤，勣遣別將馮師本載糧杖以資之。師本船破失期，待封軍中饑窘，欲作書與勣，恐為他所得，知其虛實，乃作『離合詩』以與勣。勣怒曰：軍事方急，何以詩為？必斬之。行軍管記通事舍人元萬頃為釋其意，勣乃更遣糧杖赴之。萬頃做檄文曰：‘不知守鴨渌之險’。泉男建報曰：‘謹聞命矣’，即移兵據鴨渌津，唐兵不得渡。高宗聞之，流萬頃於嶺南”(수군을 거느리고 다른 길로 해서 평양에 다다랐다. 이적이 別將 馮師本을 보내 식량과 무기를 싣고 가서 공급하게 하였으나 사본의 배가 부서져서 시기를 놓쳐 대봉의 군대가 굶주림으로 고생하였다. 글을 지어 이적에게 주려고 하였으나, 다른 사람에게 빼앗겨 그 허실을 알게 될 것을 두려워하여, 離合詩를 지어 이적에게 주었다. 이적이 화가 나서 말하기를 “軍事が 매우 급한데 어떻게 시로써 하는가? 반드시 목

일 두 사람 모두가 이적의 행군관기로 되어 있는데, 이는 당 정벌군을 총지휘하는 이적이 출정할 때 여러 명의 행군관기가 있었다는 것을 설명하는 것일까? 아니면 원만경이 嶺南으로 유배된 뒤 곽정일이 임시로 파견되어 고구려 전선으로 갔던 것일까? 두 가지 가능성에 대해서는 구체적인 기록이 없어 정확히 알기 어렵지만 필자는 후자일 가능성이 크다고 생각한다. 어쨌든 곽정일이 이적의 행군관기를 맡아 고구려에 출정했다는 것은 틀림이 없다. 곽정일의 출정 시기는 상술 내용을 감안하면 원만경 이후인 건봉 2년 이후 또는 총장 원년(668) 초로 추정된다.

총장 원년 9월, 당·라 연합군의 거센 공세로 평양성이 당·라 연합군에 의해 함락되고 고구려가 멸망하자 이적이 대군을 이끌고 고구려왕 고장과 신료 등을 압송하여 돌아왔다. 이적의 행군관기인 곽정일도 응당 총장 원년 10월 이후에 장안으로 돌아갔을 것이다. 그렇다면 이제 논의할 고구려 婢女의 당나라 입국은 이적·곽정일 대군이 장안으로 돌아간 시기와 같다고 봐야 할 것이다.

中書舍人 곽정일이 평양을 격파하고 高麗婢를 하나 얻었는데, 이름은 玉素이다. 매우 아름다워 (정일은 옥소에게) 재물창고를 담당하게 했다. 어느날 밤에 (정일이) 마실 것과 죽을 찾으며 꼭 옥소가 그것을 끓여야 한다고 말했다. 옥소가 죽에 독을 넣어 갔다. 정일이 급히 "이 婢가 나에게 약을 먹었다"라고 말하고는 토장과 감초를 찾아 먹고 해독을 하고 한참이 지나서야 낫게 되었다. (정일은) 옥소를 찾았으나 찾을 수 없었으며, 집안의 金銀 기물 십여 점도 함께 없어졌다. 황제에게 보고하니 칙령을 내려 장안의 치안 관리 불량으로 매우 급히 수색하게 했으나 3일이 지나도록 잡히지 않았다. 이때 불량인 밑에 魏穉이란 인물이 책략이 있어 舍人

을 배웠다."고 하였다. 行軍管記通事舍人 元萬頃이 그 뜻을 해석하니 이적이 이에 다시 식량과 무기를 보내 주었다. 만경이 격문을 지어 말하기를 "압록의 요해를 지킬 줄 모른다."고 하니, 친남건이 답하여 말하기를 "삼가 명을 듣겠다."고 하고 곧 병력을 옮겨 압록강 나루에서 웅거하니 당의 병력이 건널 수 없었다. 고종이 이를 듣고 만경을 嶺南으로 유배를 보냈다).

21) 許興植, 「大唐平百濟國碑銘」,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참조. 또한 拜根興·林澤傑, 「〈大唐平百濟國碑銘〉의再探索」, 『陝西師範大學學報』2016년 제4期 참조.

22) 拜根興, 「新見薛萬備墓誌考釋」, 『唐史論叢』27, 杜文玉主編, 三秦出版社, 2018.

(곽정일)의 家奴 중에서 나이 어리고 단정한 자 세 명을 골라 布衫籠頭하고 衛에 이르게 했다. 그리고 衛士 4인을 포박하고는 십일 이내에 어떤 사람이 와서 사인 집을 찾았는가라고 물었다. 위사가 말하길 "투화한[원래는 '投化'의 '化'자는 없었는데 『廣記』 제171권에 의하여 추가하였다. '化'가 있는 것이 맞다고 생각한다] 고려인이 편지를 주어 사인의 促馬奴에게 주었는데 그 편지가 있다"라고 하였다. 이에 편지를 검사해보니, "金城坊 중에 빈 집이 한 채 있다"라고 적혀 있을 뿐 다른 말은 없었다. 불량이 가서 금성방의 빈 집을 수색하였다. 한 집에 이르니 자물통이 정밀하게 채워져 있었다. 그 자물통을 깨고 문을 여니 婢(옥소)와 高麗 사람이 함께 있었다. 둘을 잡아 고문을 하니 이에 투화한 고려인과 촉마노가 공모하여 그녀를 숨긴 것이 드러났다. 이에 奉勅하여 東市에서 참했다.²³⁾

이 기사에 관해서는 이미 국내 연구자들의 연구가 있으나 중점을 장안의 치안 환경에 두고 있다. 즉 초당시기 공안 시스템의 “不良” “不良主帥” 등 “不良人”의 구성원인·사건 처리 체제·사건 처리 효율성 및 장안의 일상 질서 유지 등에 대한 검토가 많았다²⁴⁾. 그리고 「唐律」 조문에 의하여 당나라 시대의 대외 범죄에 대해 검토한 논문도 있다.²⁵⁾ 물론 이 고구려의 비녀를 “外”라고 할 수 있을지에 대해서는 검토할 여지가 있다. 특히 2018년에 제작한 드라마 “長安十二時辰”이 히트하면서 신문 잡지에 “不良人” 관련 기사가 많이 실렸다. 물론 상술 사료에 언급

23) 中書舍人郭正一破平壤，得一高麗婢，名玉素，極姝豔，令專知財物庫。正一夜須漿水粥，非玉素煮之不可。玉素乃毒之而進，正一急曰：“此婢藥我！”索土漿、甘草服解之，良久乃止。覓婢不得，並失金銀器物十餘事。錄奏，勅令長安。萬年捉不良脊爛求賊，鼎沸三日不獲。不良主帥魏昶有策略，取舍人家奴，選年少端正者三人，布衫籠頭至衛，縛衛士四人，問十日內已來，何人覓舍人家。衛士云：“有投化高麗留書，[有投化高麗留書，原無‘化’字，據『廣記』卷171引增。按：下文即作‘投化’，有‘化’字是。]遣付舍人捉馬奴，書見在。”檢云：“金城坊中有一空宅”，更無語。不良往金城坊空宅，並搜之。至一宅，封鎖正密，打鎖破開之，婢及高麗並在其中。拷問，乃是投化高麗共捉馬奴藏之，奉敕斬於東市(『朝野僉載』 권5 「郭正一」，中華書局，1979，108~109쪽.)

24) 趙守儼，「“捉不良”與“不良”」，『學林漫錄』3，中華書局，1981；朱雷，「釋“不良人”與“白水郎”一讀〈唐大和上東征傳〉質疑」，『魏晉南北朝隋唐史資料』6，唐長孺主編，1984；(日)石野智大·周東平 等，「唐代縣行政下“不良”的犯罪調查」，『法律史譯評』7，2018.

25) 王力民，「唐代涉外犯罪之研究」，『政治與法律』2016년 제3기.

된 고구려 이민자에 대해 논한 것도 있는데, 이는 주로 姜清波와 필자²⁶⁾의 논저에 보인다. 한국 학자 김현숙의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動向」, 김수진의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등 논문²⁷⁾에도 이상 문제에 관해 어느 정도 논술되어 있다.

그런데 玉素라는 고구려 비녀는 당나라에 가기 전의 출신은 어떠했으며, 어떤 상태에서 행군관기인 곽정일의 눈에 띄었고, 왜 병란 속에서 곽정일을 따라 당나라에 가기를 원했을까? 이러한 문제에 관해서는 상술한 자료에 보이는 일언반구만으로는 확실한 답을 얻을 수 없다. 그러나 그 중 몇 가지는 확실히 알 수 있을 것이다. 첫째, 사료에 나오는 “高麗婢女”라는 명칭은 고구려에서의 신분도 비녀였다는 것이 아니라 곽정일을 따라 입당한 후에 고려비녀로 불렸을 것이다. 둘째, 이 고구려 비녀는 중상류층 집안에서 태어나 일정한 지식과 소양이 있었을 것이다. 그렇지 않다면 곽정일이 그녀에게 “專知財務庫”, 즉 재물창고를 담당하게 할 수 없었을 것이다. 셋째, 기록에 보이는 “極姝艷”으로 알 수 있다시피 고구려 비녀는 필시 용모가 예쁘고 아름다웠을 것이다. 만약 생김새가 보통이었다면 곽정일도 마음에 들지 않았을 것이며, 당나라에 데려가서 자신의 비녀로 삼지 않았을 것이다. 넷째, 마지막 결말을 보면 이 비녀는 속셈이 가득하여 주인의 총애를 받아 중용되거나, 곽정일의 집에서 여유로운 생활을 보내는 현실에 대해 만족하지 않았던 것 같다.

따라서 그 원인에 대해 필자는 아래와 같이 3가지를 생각하고 있다. 첫째는 비녀가 당나라 고관의 저택에서 살면서 보고 들은 것이 많아 식견이 넓어지면서 장안의 자유롭고 개방적인 삶에 대한 기대감이 생겼고, 그동안 당나라에 있는 다른 고구려 이민자들과 자주 왕래했을 가능성도 있어 주인의 속박에서 벗어나기 위해 위험을 무릅쓰고 모험을 한 것이 아닐까 하는 생각이다. 둘째는 곽정일의 중용과 총애를 받은 탓으로 곽

26)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 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27) 김현숙,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23, 2001;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참조.

정일의 다른 처첩들로부터 질투와 협박을 받았으나 비녀라는 신분으로 강력한 보호를 받지 못하자 모든 원한을 광정일에게 쏟아붓고 그의 음식물에 독을 타고는 도망친 사건이 발생하게 되었을 것이다. 셋째는 사료에 등장하는 광정일 집의 “捉馬奴” 및 “投化高麗”와 관계된다. 기재 내용을 상세히 관찰해보면 고구려 비녀 치독 도주 사건에 관해 捉馬奴 즉 마부의 역할을 경시할 수 없다(이 마부의 족속은 불분명하나 당나라 초기에 있어서 장안에 다민족이 거주한 것으로 보았을 때 돌궐이나 다른 민족일 가능성이 크다). 마부와 投化高麗 즉 이 입당 고구려 이민자와는 일찍부터 알고 있었기에 서신을 전달할 수 있었을 것이다. 그런데 이 投化高麗는 왜 고구려 비녀에게 편지를 전하러 했을까? 그들은 오랜 지인이었을까 아니면 입당 후에야 알게 되었을까? 고구려 비녀 · 투화 고구려(投化高麗) · 광정일 마부, 이 삼자의 삼각관계를 어떻게 해석해야 할 것인가? 이는 모두 진지하게 연구 토론해야 할 문제이다. 물론 1천300여 년 전의 主奴관계, 입당 고구려 이주민의 정착 그리고 마부도 고구려 출정에 참여했는지 등 복잡한 가정과 인간관계로 미스터리 소설을 쓴다면 확실히 좋은 소재이긴 하나 여기서는 더 이상의 해석을 하지 않겠다.

또한 상술 자료에서는 장안성 金城坊²⁸⁾에 대해 언급하고 있는데 이는 장안 주작대로의 서쪽 제4열 제3줄에 위치하고 있다. 금성방 북문을 나와 서쪽으로 義寧坊 1坊을 지나면 장안성 서성벽의 가장 북쪽에 있는 문, 즉 開遠門에 도달하며 남쪽으로는 서시장에 접근한다. 坊内에는 樂善尼寺 · 開善尼寺 · 會昌寺 · 廢太清觀 그리고 漢博望苑 · 漢思後園 등 사찰 원림이 있었다. 이 시기에 금성방에는 또한 許洛仁宅 · 獨孤大惠宅) · 安菩宅 · 李整宅 · 孟府君妻劉氏宅 · 內供奉王守信宅²⁹⁾ 등이 있었다. 즉 관위가 서로 다른 사람들이 금성방에 거주하고 있었다는 것이다. 하지만 상술 자료에 의하면 장안 불량인은 금성방 빈집에서 고구려 비녀와 투화 고구려 이민 및 광정일 집의 마부 등 3명을 찾아냈다고 기록되어 있다. 일반적으로 장안성 남쪽 방에는 대량의 빈집이 있었고, 그 중에는

28) 史念海, 「唐代長安外郭城街道及裏坊的變遷」, 『中國曆史地理論叢』1994년 제1기.

29) (清)徐松撰(李健超增訂), 『增訂 唐兩京城坊考』, 三秦出版社, 2019, 289~293쪽.

사원과 大戶 묘지 등이 있었다고 여겨지는데, 장안성 서북쪽의 중요한 통로인 개원문에 인접한 금성방에도 당고종 때에 빈집이 존재했던 것이다. 기록에 의하면 이 고구려 비녀와 투화 고구려인, 그리고 곽정일 마부 세 사람이 장안성의 공간기관 불량인을 피해 도망쳤기 때문에 당연히 빈집의 은닉성과 안전성을 고려해야 한다. 따라서 금성방 빈집은 이곳만이 아니었을 것이다. 그들은 개원문으로 도망갈 계획이었을 가능성이 있다. 그렇지 않다면 왜 개원문 근처에 숨었던 것일까? 하물며 그들은 도망갈 때 금은기물 등 귀중품을 가지고 있었다. 사료의 제한으로 인해 이러한 문제는 모두 해결하기 어려운 상황이다.

어쨌든 이 증서사인 곽정일 집에서 발생한 고구려 비녀 치독·도망 사건은 고구려 이민이 입당한 뒤 당나라 도성에서의 새 삶을 추구하고 적응하고자 하는 현실 상황을 보여주고 있다. 어떤 사람은 초기의 고통스러운 경험을 거쳐 점차 장안의 생활에 적응해 갔으나 어떤 사람은 자신의 목표를 달성하지 못하고 이로 인해 생명의 대가를 치른 사람도 있었다. 아무튼 당나라의 개방과 포용력이 큰 배경 하에서 당나라에 입국한 각 민족 백성들은 생활 등 여러 방면에서 자발적 또는 비자발적으로 자신의 가치를 실현하기 위해 끊임없이 탐구하였다. 어떤 사람들은 불행하게도 비명횡사하게 되었으나 대다수는 唐人 공동체의 일원이 되어 당의 번영에 기여하였다. 이것이 현실이며 또한 이것이 진정한 역사이다.

V. 맺음말

본고에서는 현존 사료에 근거하여 고구려 최초의 입당 여성 이민자인 천남생의 모친 천씨 부인, 입당 후 위험을 무릅쓰고 크게 모험을 한 고구려 비녀, 그리고 26세에 장안에서 사망한 고구려 이민자의 후손 고제석의 행적에 대해 검토하고 이러한 사례를 통하여 입당한 고구려 이민자들의 다양한 생활 경험과 고구려 이민에 대한 당인들의 인식 과정을 살펴보았다³⁰⁾. 물론 본고에서 언급한 세 명의 고구려 이주 여성은 수많

은 고구려 이주 여성의 개별 사례일 뿐 이로 인해 고구려 이주 여성을 총체적으로 이해할 수는 없다. 이외에 8세기에 이민한 고구려 후예 중 여성의 자료로는 고구려 왕족 高震의 딸 고씨, 천현성의 손녀 천씨 부인³¹⁾, 그리고 營州에 거주했던 고구려 이민 高英淑 등의 석각묘지 사료가 현재 남아있다. 이들 이주 여성의 후예들은 당나라의 개방과 포용의 큰 배경 하에서 당나라 공동체에 융합되고 최종적으로는 당나라의 일원이 되었다. 당나라가 다민족 국가를 통일한 과정을 이러한 사례로부터 확인할 수 있다. 더 많은 석각묘지 자료가 출토되어 입당 고구려 이민 문제 연구에 더욱 많고 더욱 새로운 근거를 마련해줄 것을 기대한다.

※ 이 논문은 2022년 4월 30일에 투고 완료되어
2022년 5월 25일부터 6월 13일까지 심사위원이 심사하고,
2022년 6월 14일 편집위원회에서 게재 결정된 논문임.

30) 拜根興·侯振兵, 『唐人對高句麗及高句麗移民的認識』, 『唐史論叢』13, 杜文玉編, 三秦出版社, 2011.

31) 拜根興, 「新見〈唐故餘杭郡太夫人泉氏墓誌〉考釋」(미출간) 참조.

참고문헌

- 姜清波, 『入唐三韓人研究』, 暨南大學出版社, 2010.
- 金文經, 『唐高句麗遺民和新羅僑民』, 日新社, 1986.
- 苗 威, 『高句麗移民研究』, 吉林大學出版社, 2011.
- 拜根興, 『唐代高麗百濟移民研究：以西安洛陽出土墓誌爲中心』, 中國社會科學出版社, 2012.
- 拜根興, 『七世紀中葉唐與新羅關係研究』(修訂本), 사회과학문헌出版社, 2020.
- 羅振玉編著, 『唐代海東藩閔志存』(石刻史料新編本), 台灣新文豐出版公司, 1987.
- 程義, 『關中地區唐代墓葬研究』, 文物出版社, 2012.
- (清)徐松撰(李健超增訂), 『增訂 唐兩京城坊考』, 三秦出版社, 2019.
- 김수진, 『唐京 高句麗 遺民 研究』, 서울대학교 박사논문, 2017.
- 김현숙, 「中國 所在 高句麗 遺民의 動向」, 『韓國古代史研究』 23, 2001.
- 金榮官, 「高句麗 遺民 高提昔 墓誌銘에 대한 연구」, 『白山學報』97, 韓國白山學會編, 2013.
- 盧泰敦, 「高句麗遺民史研究」, 『韓佑勸博士停年紀念論集』, 1981.
- 曹凡煥, 「在唐 고구려 遺移民의 삶과 죽음」, 『韓國古代史探究』第35輯, 韓國古代史探究學會編, 2020.
- 高明士, 「从天下秩序看古代的中韓關係」, 『中韓關係論文集』, (台北)韓國研究學會編, 1983.
- 高明士, 「隋唐天下秩序與羈縻府州制度」, (台北)『中華民國史專題論文集』第5輯, 國史館, 2000.
- 許興植, 「大唐平百濟國碑銘」, 『韓國金石全文』(古代), 亞細亞文化社, 1984.
- 拜根興, 「激蕩五十年：高句麗與唐關係研究」, (韓)『高句麗研究』 14, 2002.
- 拜根興, 「〈大唐平百濟國碑銘〉關聯問題考釋」, 『唐史論叢』8, 杜文玉主編, 三秦出版社, 2006.
- 拜根興·侯振兵, 『唐人對高句麗及高句麗移民的認識』, 『唐史論叢』13, 杜文玉編, 三秦出版社, 2011.
- 拜根興, 「唐代百濟移民祿氏家族墓誌相關問題研究」, 『當代韓國』 2012년 제2기.

- 拜根興·林澤傑, 「〈大唐平百濟國碑銘〉의再探索」, 『陝西師範大學學報』 2016년 제4期.
- 拜根興, 「新見薛万備墓誌考釋」, 『唐史論叢』 27, 杜文玉主編, 三秦出版社, 2018.
- 拜根興, 「入唐高句麗移民研究現狀與問題」, 『社會科學戰線』 2019년 제8기.
- 拜根興, 「新見〈唐故餘杭郡太夫人泉氏墓誌〉考釋」(미출간).
- 史念海, 「唐代長安外郭城街道及裏坊的變遷」, 『中國曆史地理論叢』 1994년 제1기.
- 範恩實, 「入居唐朝內地高句麗遺民的迁徙與安置」, 『社會科學戰線』 2017년 第5期.
- 趙守儼, 『學林漫錄』 3, 中華書局, 1981.
- 王力民, 「唐代涉外犯罪之研究」, 『政治與法律』 2016년 제3기.
- 王其禕·周曉薇, 「國內城高氏: 最早入唐的高句麗移民—新发现上元元年〈泉府君夫人高提昔墓誌〉釋讀」, 『陝西師範大學學報』 2013년 第3期.

Life Stories of Three Goguryeo Female Immigrants as Seen in Historical Records

Bai Genxing

In 668 A.D., when the Tang Empire and Silla allied to end the reign of Goguryeo, numbers of Goguryeo immigrants entered the land of Tang. As immigration was welcomed in the early years of the Tang Dynasty, Goguryeo immigrants were settled in the capital Chang'an (长安), the eastern capital Luoyang (洛阳), and the provinces of Longyou Dao (陇右道) and Jiangnan Dao (江南道). As time went by, these people gradually became part of the Tang community. Based on epitaphs and historical documents, this essay tells the life stories of three characters: Ms. Quan (泉氏夫人), mother of Quan Nansheng (泉男生 who moved to Tang during A.D. 660s), a maidservant from Goguryeo, as well as Gao Tixi (高提昔), a descendant of Goguryeo immigrants. By exploring different lives of the immigrants, especially female immigrants from Goguryeo to the Tang Dynasty, this essay tries to provide more examples about Tang immigrants to the scholarly community.

keywords :

Tang Dynasty, Goguryeo, Goguryeo Immigrants, Women